

# “소녀야, 일어나라” - 성서번역 이야기

필 노스\*

탈리타 쿨.

토 코라시온, 소이 레고, 에게이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Littel girl, I say to you, arise -RSV)

“소녀야, 일어서라!”

(Little girl, get up! - CEV)

## 1. 들어가는 말

복음서 기자 마가는 어려운 청이 있어 예수를 찾아온 회당 지도자 야이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의 딸이 매우 아파 죽어가는데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예수를 찾아왔다. 그렇게 해주시면 병이 나아서 딸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예수는 도와주고 싶었던 듯하다. 그런데도 지체하면서 오히려 어떤 여인을 찾아간다. 20년 동안 병으로 고통 당하여 낫기를 바라는 여인이다. 소녀를 찾아가기도 전에 소녀가 이미 죽었다는 비보를 듣는다. 더 이상 스승을 괴롭힐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 소식을 접하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주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야이로의 집에 이르자 예수는 집 밖에서 우셨다. “그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뒤 집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그를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탈리타 쿨!”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다. 이야기꾼은 이렇게 말한다. “소녀가 금방 일어나 주위를 걷기 시작했다”(CEV). 모두 놀랐다. 하지만 예수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단지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실 뿐이다.

## 2. 탈리타 쿨! - 말의 힘

---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총책임자.

어느 사회에서나 말은 엄청난 힘을 지닌다. 메시지를 전하는 데 말이 쓰이기도 하고, 좋은 효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쁜 효과를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말 많은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성경 속에 들어 있는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2.1.말과 창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말은 “빛이 생겨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자 “빛이 생겼다”고 하였다. 빛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창조주께서 어둠에서 그 빛을 가르셨다는 말이다. 계속해서 이야기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인용되어 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창조 이야기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예수의 말씀으로 소녀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하는 마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이 이야기를 처음 입으로 전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에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듯하다. 창조주 자신이 하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옛 이야기를 보존하고 입으로 말하는 이야기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처음 듣는 이들에게 말하듯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쓴 이들은 그 말을 직접 인용한다. 이러한 인용은 히브리 성서에서 흔한 문체로, 말에는 극적인 힘이 있다는 점을 드러낼 때 자주 등장한다.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점 또한 축복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첫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바다 괴물과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내리신다. “많이 낚아 자꾸 늘어나라, 바다의 물을 가득 채우라. 땅에는 새가 자꾸 늘어나라”(창 1:22)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또한 다른 복을 내리는 것도 많다.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은 후손을 두고 장수하라는 복을 말한다. 하지만 저주 또한 등장한다. 처음 저주는 처음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 저주는 복의 반대이다. 저주받은 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슬프게도 하며 또 비극에 빠지게도 한다.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은 “축복”(benediction)이나 “악담”(malediction)이라는 영어 낱말 속에도 스며 있다. 라틴어 밑말이 각각 “ 좋게 말함”과 “나쁘게 말함”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실 시인들은 말에 힘이 있다는 점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과 극작가들은 풍자를 시와 희곡에서 자주 사용하였으며, 로마 시인들은 풍자를 시의 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곧 기존사회의 표준에 따라 살지 않는 이들을 공격하려고 사용한 아이로니, 풍자, 비꼼과 같은 문학기법으로 씌어진 시를

말한다. 시인이 겨냥하는 것은 놀람과 위협이다. 최근 흑인성을 강조하는 아프리카 시인들은 시인의 창조적인 힘을 말한다. 시란 어떤 사건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건의 창조행위이다. 작명 또한 창조행위이다.

성경을 훑어보자면 말에 창조적인 힘이 들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진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문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 “맨 처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였다.” 예수께서 소녀에게 하신 말씀, “탈리타 쿴!”은 말 그대로 복을 내리신 것이다. 아이로의 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명령이다. 애곡하는 이들과 그 사건을 지켜보던 이들에게는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라는 부르심이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 말이다!

## 2.2. 말과 소통

말에는 소통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은 친구약을 꿰뚫는 중요한 주제이다. 창세기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한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은 말이 통했지만, 타락 이후에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바벨탑 이야기는 그 절정이다. 인간은 함께 계획하고 일하여 큰 일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거만한 계획을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창 11:6-7 표준새번역 개정판)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시자, 물론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얘기가 없지만, 탑 공사는 끝장나고 만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기 때문이다(창 11:8-9 표준새번역 개정판). 탑을 쌓던 이들은 분명 통역 경험이 없던 이들이다. 새로 생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 제국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넓었다. 이 광대한 제국을 잘 지배하려면 아주 효율적인 소통 체계가 필요하였다. 하만이 제국 안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음모를 꾸밀 때,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더 3:12 표준새번역 개정판) 조서를 작성케 한다. 조정에서는 이 조서를 제국의 모든 대신들과 총독들에게 보낸다. 에스더가 동족의 목숨을 구하려고 왕에게 간청하자, 두 번째 조서를 제국의 127 지방에 보낸다. 이 조서 역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이 쓰는 말로 작성된 글이다. 물론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로도 작성되었

다. 어인이 찍힌 조서를 지니고 마부들은 날쌔 말을 타고 전 제국을 돌았다. 이렇게 옛 페르시아 조정에서는 번역자들과 통역자들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바벨탑 사건에서 비롯된 언어의 혼란은 신약의 성령강림 사건과 맞닿는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들이 함께 모였다고 기록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행 2:4 표준새번역 개정판)고 한다. 그 결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개 대륙에서 온 각 나라와 각 인종 사람들이 갈릴리인들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한다. 곧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을 자신들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막아 놓은 언어의 장벽이 성령의 임재로 허물어진 것이다. 성령강림절에 사도들 가운데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야기는 말이 통했다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기록이다. 바벨탑 사건이 말하는 점은 서로 의사를 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교만이라는 점이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제국 온 땅에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죽음과 파멸의 메시지이지만, 둘째 메시지는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이다. 야이로가 예수께 보낸 메시지는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였으나 심부름꾼들은 다른 메시지를 들고 돌아왔다. 슬픔이 배어 있는 이 메시지는 예수의 일상을 바꾸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예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셨다.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신 뒤 예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당부하셨다. 강림절 날, 사도들은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는 능력이다.

### 3. 탈리타 쿨! - 메시지를 전하기

성서번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야기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사명”을 실천하는 일이다. 마 28:18-20과 행 1:8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따르는 일이다. 신약의 말을 빌리자면 성서번역의 목적은 복음을 옮기는 일이다.

#### 3.1. 성서 속의 번역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서 기자 마가는 본문에서 번역이라는 행위를 한다. 예수가 어린 소녀에게 말하신 아람어를 독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이 인용한 말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가는 본문에 그리스어로 그 뜻을 밝힌다.1) “이 말의 뜻은”이라는 구를

집어넣으면서 말이다. 문자적으로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 또는 “해석된 것”이라는 뜻을 지닌 관계절이다. 아람어 본문에 이어서 저자의 번역이 따라 나온다. 마가는 이렇게 원문을 읽는 독자들을 번역문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번역 또는 통역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서번역의 역사를 성서본문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통역은 느 8:12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70년의 바빌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되돌아온 때의 일이다. 고향 땅에서 자리를 잡은 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 에스라는 사제와 학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와 읽으라고 하였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토라를 읽어 주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 살 때부터 아람어를 말하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씌어진 토라를 읽을 때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했다.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느 8:8, 표준새번역 개정판).

성서에서 번역 문제를 기록한 예는 집회서의 머리말이 유일하다. 이 책은 시라의 아들 예수의 지혜라고 알려져 있고 제2경전에 들어 있다. 이 책은 기원전 180년 경 본디 히브리어로 씌어졌다. 이 책 서문을 보면 유에르케테스가 이집트를 다스릴 때 시라의 손자가 그 곳에 몇 년간 머물면서 그리스어로 이 책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머리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의 온 지식을 기울여 불철주야, 이 책을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는 일에 몰두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같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절의 번역이 혹 잘못되었으면 널리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영문 GNB: 공동번역 인용)고 했다.

시라의 손자는 이 머리말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다른 책이 있다고 말한다. 특별히 그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언급하면서 이 밖에도 번역된 책이 더 있다고 말한다. 이 때는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옮긴 칠십인역이 나온 즈음이다. 이 번역 역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 “칠십인역의 전설”(Robinson 1997:4)에 따르면 이 번역은 위원회가 내놓은 번역이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12부족을 대표하는 각각 6명의 학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예루살렘의 대사제 엘리아제르가 이집트로 보낸 사람들이다. 2명의 번역자가 한 팀이 되어 72일 동안 따로 따로 번역하였다고 한다. 각 팀은 히브리어 본문을 옮겼는데 그 번역

---

1) 여러 번 마가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인용하면서 해석까지 집어넣는다. 사람 이름(“번개의 아들,” 3:17)이나 땅 이름(골고다, 15:22) 또는 “예마다!”같은 명령(7:34)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부르짖은 말(15:34)인 “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등이 그 예이다.

원고가 모두 똑같다고 하였다. 곧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을 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72명의 번역자를 기려 번역의 이름을 “칠십인역”이라고 부르고 LXX로 흔히 표기한다. 이 그리스어 번역은 예수 당시를 전후하여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히브리성서이다. 또한 신약의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역본이기도 하다.<sup>2)</sup>

### 3.2. 성서번역의 역사

성서번역의 역사는 여러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유진 나이다는 교회의 활동에 비추어 또 번역 원칙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Nida 1972:ix-x). 시기를 따라 나누기는 했지만 각각 번역 원칙을 대변하는 구분이라 할 수 있다.

1.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고대 언어 번역 시기
2. 개혁시대의 번역 시기
3. “선교 대부흥” 번역의 시기
4. 모국어 번역자와 일상어 번역 시기

#### 3.2.1. 초대 교회 시기

처음 성서를 번역한 시기는 처음 그리스도교회가 자리를 잡고 뻗어나가던 시기이다. 이 즈음 그리스도교회와 성서번역은 세 방향으로 움직였다. 곧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동쪽 아시아와 남서쪽 아프리카와 북동쪽 유럽이다.

이집트 유대인 공동체의 칠십인역을 따라 옛 시리아어로 옮기는 작업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시리아어는 셈어로 아람어에 가까운 언어이며 팔레스틴의 북동쪽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이다. 옛 시리아어는 지금 터키 남동쪽에 있는 에뎃사의 문학 언어였다. 기원후 1세기 초반에 오경의 일부가 시리아어로 번역되었다(Wegner 1999:242). 이 번역이 유대인이 번역한 것인지,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번역한 것인지 또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번역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sup>3)</sup> 3세기 경에 에뎃사는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5세기에 나온 시리아역 개정본, 곧 페슈타역은 칠십인역의 영향을 받았다. 시리아어 성서는 일찍이 동쪽으로 인도까지 퍼져나갔으며 6

---

2)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이 채용한 번역방법과 기법을 알아내기 위하여 학자들이 지금 방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Olofsson 1990을 보라.

3) 2세기에 아퀼라가 히브리성서를 매우 문자적으로 번역하여 새로운 그리스어 역본을 내놓았다. 칠십인역을 대신하여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세기에는 네스토리아인들이 스리랑카와 중국까지 이 성서를 가지고 갔다. 중국에서 경교인이라고 불리는 네스토리아인들이 640년 중국의 태종 황제를 위하여 복음서를 중국어로 번역하였다고 하지만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Nida 1972:70).

기원후 1세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에 뿌리를 내렸다. 마가 사도가 그리스도교를 이집트와 리비아에 전했다고 한다. 기원후 65년 경 알렉산드리아에 첫 교회가 세워졌다. 이 곳에서는 칠십인역과 신약의 그리스어 사본들을 사용하였다. 요한복음의 가장 오래된 2세기 사본 단편이 이집트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리스도교회가 북 아프리카에서 자라나 나일강을 타고 퍼져 올라갔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따라 나아갔다. 2세기에 이집트의 여러 언어로 번역이 나왔다. 사히딕이라고 부르는 콥트어 번역 성경전서가 3세기 말에 나왔다. 이 언어는 상 이집트 지역에서 사용되다가 10세기에 없어졌다. 6-7세기에 성서가 아래 이집트 지역의 언어인 보하이르어로 번역되었다. 이 언어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언어이고 콥트 교회의 공식언어가 되어 지금도 예배 때 사용하고 있다. 물론 17세기 즈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말을 쓰지 않았다. 콥트어의 여러 방언으로 번역된 이 역본들은 모두 칠십인역을 옮긴 것이다.

2세기 말쯤에 오늘날의 튀니지인 카르타고 서쪽에도 그리스도교회가 생겨났다. 약 3세기 전 이미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하여 로마인들이 그 곳과 인근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카르타고어와 베르베르어였지만, 엘리트층과 장사꾼들이 사용하던 말은 라틴어였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을 사용하였다. 가장 오래된 신구약 라틴어 번역은 아마도 북 아프리카에서 나온 듯하며 이것이 바로 “옛 라틴어역”이라고 부르는 역본들이다(Wegner 1999:250-251). 기원후 150-220년 사이에 여러 종류의 “옛 라틴어역”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라역”(Afra)이다. 칠십인역을 위시한 북 아프리카의 여러 번역본이 널리 퍼져 나간 때문에 아프리카를 “성서 번역의 요람”(Sugirtharajah 2001:31)이라고 부른다.<sup>4)</sup>

한편, 아시아에서는 그리스도교회가 북쪽으로 아르메니아와 조지아(그루지아)까지 퍼져나갔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돌로매 사도와 다대오 사도가 아르메니아에 갔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계몽가 성 그레고리를 통하여 아르메니아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첫 나라가 되었다. 3세기 말과 4세기 초의 일이다. 5세기 초에 가서야 성경이 아르메니아어로 번역되었다. 아르메니아어 성경을 번역한 이들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르메니아어의 알파벳

4) 아프리카의 성서번역과 교회에 대해서는 Ype Schaaf의 책 *On Their Way Rejoicing*(1994)을 보라. 또 Noss 2001을 보라.

을 고안해 낸 메스롭(Mesrop)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학(Sahak) 주교이다. 번역의 대본은 그리스어와 시리아어 본문이었다. 번역자들과 돕는 이들이 알고 있는 언어였기 때문이다(Delisle and Woodsworth 1995:12).

조지아는 아르메니아의 북쪽에 있던 나라로, 전하는 이야기로는 조지아어와 알바니아어의 알파벳을 만들어 낸 이가 메스롭이라는 것이다. 4세기에 그리스도교가 니노(Nino)라고 하는 여성 노예를 통해서 조지아에 들어갔다(Wegner 1999:248). 니노는 조지아의 왕이 잡아들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나중에 수녀가 되었다. 성경 번역은 5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르메니아어를 대본으로 삼은 듯하다.

한편, 이집트의 남쪽에는 누비아와 에티오피아가 있었다. 빌립 사도가 세례를 준 에티오피아인 내시는 구스 또는 누비아라고 하는 땅에 있는 메로에의 칸다스 왕실 소속이었다. 전하는 말로는 그가 새로운 신앙을 지닌 채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그 곳에 세워졌다는 증거는 없다. 복음이 누비아에 들어간 것은 3세기의 일로, 5-6세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비아어는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적는다. 성서의 일부가 그리스어 본문에서 누비아어로 번역되었다. 그 곳에 16세기까지 교회가 왕성하였다. 이즈음에 아랍인들에게 점령되어 이슬람의 영향권으로 들어갔다.

누비아 남동쪽에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전설에는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을 만나러 여행했다고 한다. 솔로몬 왕을 만나고 와서 낳은 아들이 메넬릭(Memelik) 제1세로, 에티오피아의 서유인 액섬(Axum)의 왕이라는 것이다. 전설에는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그가 대사제의 아들과 함께 액섬으로 돌아올 때 계약궤도 함께 가져왔다는 것이다. 지금 액섬에 있는 계약궤가 바로 이때 가져온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언제 그리스도교회가 에티오피아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단지 흐루멘티우스(Frumentius)와 애데시우스(Aedesius)라는 두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한다. 4세기 경에 시리아 출신인 두 젊은이는 바다를 통하여 인도로 가고자 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에리트레아 해안인 홍해 부근에서 잡혀 다시 액섬의 왕실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대접을 잘 받았다. 왕실 일을 보도록 명을 받고 왕실 교육을 받았다. 왕실 가족은 흐루멘티우스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수 년이 지나 액섬을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흐루멘티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콥트 주교를 찾아가 액섬에 감독을 보내달라고 청한다. 주교는 흐루멘티우스를 축성하고는 에티오피아로 되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전하는 말로는 흐루멘티우스 감독이 액섬 사람들이 쓰는 말인 게에즈(Ge'ez)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또한 “아홉 성인”이라고 하는 수도사들이 시리

아에서 에티오피아로 와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얘기도 있다. 6세기 말쯤에 성경 전서가 모두 게에즈어, 곧 에티오피아어로 번역되었다. 대본은 그리스어 성경이다. 물론 시리아어 성경의 영향도 있었다. 이 성서가 오늘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사용하는 성서이다. 구약 54권과 신약 27권, 도합 81권의 책이 성경 속에 들어 있다. 그리스도교회의 정경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이 들어 있는 셈이다. 이 성경 속에는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에는 없는 회년서와 에녹서가 포함되어 있다.

### 3.2.2. 개혁 시대

나이다가 분류한 두 번째 주요 성경번역 시대는 15-16세기의 유럽 개신교회 개혁시대이다. 또한 15세기 중반에 발명된 구텐베르크 인쇄기와도 관련이 있다. 개혁자들은 성경이 사제들의 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비교적 손쉽고 값싼 인쇄술이 발명되어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번역과 반포가 성황을 이루었다.

개혁이 있기 수세기 전에도 번역작업이 없지는 않았다. 아프리카에서는 누비아 교회와 에티오피아 교회가 아직 지방 교회 교인들의 언어로 성경을 옮기지 않았다. 북 아프리카에서는 동쪽은 그리스어가, 서쪽은 라틴어가 교회의 언어였다. 이 두 언어는 또한 상업 및 무역용 언어이기도 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쓰는 말이기도 했다. 퓨닉어가 모국어였던 어거스틴조차도 번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옛 라틴어역을 좋아하였으며 자신의 뿌리인 아프리카보다는 로마에 더 이끌리기도 하였다. 이집트의 콥트 교회를 빼고 북아프리카에서 교회가 사라진 이유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교사 시대가 오기 전까지 성경이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번역되지 않았다.

최초의 아랍어 성경은 비교적 늦게 등장한다. 7세기에 들어서야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지만, 9-10세기 사본만이 수없이 많다. 처음 아랍어 구약 역본은 그리스어 칠십인역을 번역한 콥트어 역을 옮긴 것이다.

아시아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시리아어 성서가 있었다. 이 번역은 인도의 성도마 교회도 사용하던 것으로, 서방 출신 첫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발견하였다. 선교사들이 처음 인도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인도에서는 그 곳 말로 성경이 번역된 적이 없었다. 1811년 시리아어 성경을 말라바르어로 처음 번역하였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13세기에 성경이 번역된 적이 있다고 전해지나 남아 있는 것이 없다(Nida 1972:70).

개혁시대까지 유럽에서 사용된 성경은 주로 라틴어 불가타역이었다. 동유럽

에서 슬라브어 성경은 성 시릴(Cyrl)이 번역을 시작하여 그의 사후에 그의 형제인 메토디우스(Methodius)가 완성시켰다. 9세기의 일이다. 이 슬라브어 성서는 나중에 교회의 예전용이 되었다. 동방교회에서 사용하던 시리아어 성경과 아르메니아어 성경처럼 이 역본도 칠십인역에서 옮긴 것이다.

개혁시대의 번역자들 가운데에는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옮긴 마르틴 루터가 가장 유명하다. 마르틴 루터는, 번역이란 특정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믿은 사람이다. 곧 사람들이 쓰는 말로 옮긴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그는 또한 강조했다. 루터의 번역기법과 능란한 언어 구사력 때문에 이 역본은 독일어와 독일문학의 표준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다. 오늘날까지도 “루터역”은 수없는 개정본이 나오면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인쇄된 첫 번째 책은 12권으로 된 불가타역이다.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불리는 1456년 판 성경이다. 10년 뒤 두 번째 성경이 인쇄되었다. 1466년에 인쇄된 독일어 성경으로, 인쇄된 최초의 근대 번역이다. 15세기 말, 적어도 성경의 일부가 인쇄된 언어는 12언어였다(Nida 1972:484). 이 가운데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유럽 언어가 아니었다. 1500년에는 전세계를 통털어 35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 300년 뒤, 곧 19세기 초에는 모두 74개 언어로 번역되었다(Smalley 1991:34).

### 3.2.3. 선교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현대적 활동은 16-17세기와 18세기를 걸쳐 시작되었다. 초기에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가톨릭 선교사들은 대부분 불가타역을 사용하였다. 물론 교리서와 성구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번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앙골라에서는 16세기에 키콩고(Kikongo)어로 17세기에 김분두(Kimbundu)어로, 16세기에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각각 마후아틀(Mahuatl)어와 케추아(Quechua)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Mitchell 2001:420-21). 로마 가톨릭교회는 16세기에 중국에서도 번역 작업을 하였다.

19세기는 나이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교사들이 전력을 다한” 시대였다.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유럽인들의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는 또한 영적인 각성운동이 나라마다 일어났다. 이 때가 바로 선교사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벌이던 시기이다. 대부분 유럽 교회와 북 아메리카 교회가 세계의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것이다. 번역 사업 또한 왕성하였다. 19세기만 해도 446개의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선교사들의 이런 활동은 20세기에도 계속되었으며 20세기 말쯤에는 1,399개가 더 생겨 성경의 일 부분이라도 인쇄된 언어는 모두 2,287개의 언어로 늘어났다.<sup>5)</sup>

해외선교 단체는 성서번역 사업을 많이 지원한다. 하지만 그 명성은 또한 성서공회 운동으로 돌려야 한다. 이 운동은 성서공회가 처음 생긴 1804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곧 영국성서공회를 말한다. 영국성서공회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곧 “선교와 복음전파, 세계 비전 그리고 교회를 위하고 섬기는 초교파적 사업”(Béguin 1965:12)이다. 19세기 초반에 성서공회가 영국에서 생겨나 유럽 대륙과 해외까지 급격하게 늘어났다. 1804년 후반에 스위스의 바젤에 성서공회가 설립되었다. 1806년에는 더블린 성서공회가 세워졌고, 미국에서는 1808년에 필라델피아 성서공회가 생겨났다. 1812년에는 핀란드 성서공회가 설립되었다. 같은 해에 인도양의 마우리티우스와 세일론에도 성서공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동 파키스탄에는 일년 먼저 성서공회가 활동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는 1812년에 성서공회 활동이 시작되고, 남아프리카에는 1820년에 성서공회가 설립되었다. 19세기 전반에 성서공회 운동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성서공회의 주요 목표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이 성서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서에는 주나 교리적 설명을 붙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말로 번역하여 값싼 가격에 사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성서가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으면 그 말로 번역한다. 1818년에 미국성서공회는 북 아메리카 원주민의 여러 언어로 처음 성경을 펴냈다. 1819년에 영국성서공회는 번역실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18세기 말 아시아에서는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다. 1727년에는 타밀어 성경이 1733년에는 말레이어 성경이 나왔다. 첫 중국어 성경은 마쉬만역으로 1822년에 나왔으며, 곧이어 모리슨역이 1823년에 나왔다. 이 흐름은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되었는데 1835년에 아프리카의 첫 번역성경인 마다가스카르어 성경이 나왔고, 1838년에는 태평양군도의 첫 성경이 타히티어로 나왔다. 19세기 말까지 성경의 부분이라도 번역된 언어는 모두 620개였다(Smalley 1991:34).<sup>5)</sup>

선교사들은 서둘러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받아 적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재정적으로 조직적으로 후원하는 선교부와 여러 성서공회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 3.2.4.근대

5) United Bible Societies, World Annual Report 2001, 330쪽을 보라.

6) 아시아의 성서번역 상황을 요약한 글로는 Ogden 2001을,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는 Ellingworth 2001을 보라.

근대는 20세기 중반과 연결되는 시기이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 식민지 시대가 끝나는 시기이다. 정치적 독립은 교회의 독립과 맞물려 선교사들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번역 방법 역시 바뀌었다. 인류학과 언어학을 강조하면서 번역 방식도 달라졌다. 문자적이고 형식 일치적인 번역에서 벗어나 일상어로 된 번역, 더 나아가 뜻을 전달하는 번역으로까지 발전되었다.<sup>7)</sup> 원문의 형식보다는 뜻 전달에 강조점을 두었다. 선교사 번역자들보다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번역자들을 우선시하였다. 성서공회가 이런 운동에 앞장섰다.

1946년 각 나라의 성서공회는 전세계 동아리 모임인 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세웠다. 이 모임에는 현재 138 회원 성서공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개가 넘는 세계 각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한다.<sup>8)</sup>

성서공회 운동이 시작되던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협력 사업을 벌이는 등 개방적이었다. 하지만 1826년 영국성서공회가 스코틀랜드 부흥운동주의자들의 압력을 받아 개신교인들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퍼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서공회와 연합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도 하였다. 곧 제2경전이 들어 있는 성경을 함께 펴내고 반포하는 일을 말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가끔 접촉하기도 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함께 일해나가기도 했으나 개신교회의 개혁운동 이래로 갈라진 틈은 좁처럼 매울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 세기 동안 이러한 소외와 반목의 기류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티칸 제2공의회이다. 또한 교황 바오로 6세가 1965년에, 강론시 성서는 매우 중요하며 성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말, 그리고 성서번역을 함께 해야 한다고 내린 교서 때문이다. 오늘날 약 절반의 성서번역 사업이 신앙고백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다.<sup>9)</sup>

최근 여러 성서공회와 정교회가 성서번역과 출판을 함께 하자는 토론을 시작하여 합의를 본 적이 있다. 지금 그리스성서공회는 칠십인역을 현대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있다. 또 아르메니아어 주교성서의 개정 작업을 아르메니아성서공회가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성서공회와 터키성서공회가 각각 슬라브어 본문기획과 시리아어 본문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성서공회

7) Nida 1964, Taber and Nida 1982, Larson 1984, Wilt, ed. 2002를 보라.

8)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Edwin H. Robertson, *Taking the Word to the World: Fifty Years of the United Bible Societies*(1996)를 보라.

9) 연합성서공회와 바티칸은 연합 성서번역 사업의 지침서용 문헌인 *Guidelines for Interconfessional Cooperation in Translating the Bible*(1968, 1987)에 도장을 찍었다.

가 에티오피아정교회와 옛 게에즈 신약의 새 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대 암하르어로 정교회용 성경전서를 새로 번역하고 있다.

비슷한 기관이 성서번역을 목적으로 수없이 생겨났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기구로는 위클리프 성서번역자(WBT)라는 기구와 이 기구를 학문적으로 지원하는 여름 언어학 연구소(SIL)가 있다. 이들은 세계 각처에서 여러 성서공회와 긴밀히 도와가며 활동하고 있다. 이 기관들이 주로 초점을 맞추어 하는 일은 글이 없는 언어의 글자를 만드는 일과 이 새로운 언어로 신약을 옮기는 일이다. 점점 구약까지도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국제성서번역자(IBT), 루터성서번역자(LBT), 성서번역자(PBT), 국제성서회(IFS), 성서 국제(BI) 모두 마찬가지로 성서번역에 종사하는 기구들이다. 거의 20개가 되는 자매기관이 함께 모여 “성서기관 포럼”을 개최하고 성서 번역과 반포라는 공통의 노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 3.3.성서 번역자들

성서 번역은 지역을 뛰어넘어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때로 번역은 한 사람의 비전과 노력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물론 다른 이들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전통 속에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 일을 수행한 사람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 성서를 번역하기 위해 모국어 글자를 고안해 낸 율힐라스 감독
- 교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대신 불가타역의 “대부”가 된 교인 성 제롬
- 고전적 선교사 전통에 서있는 첫 번역자 윌리엄 캐리
- 교인이 되어 모국어로 성서를 번역한 아프리카 그리스도인 사무엘 아자이크로우더

#### 3.3.1.율힐라스 감독

“작은 여우”라는 뜻 이름을 지닌 율힐라스 또는 율힐라(331?-383?)는 고트 사람으로 지금의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다. 늘그막에는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 오늘날 불가리아가 된 지역으로 건너가 거기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 율힐라스는 그의 외가 쪽 조상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들 외가쪽 식구들은 지금은 터어키가 된 갑바도기아를 침략한 고트 사람들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예배 때 낭독자였으며 성경을 공부하였다.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감독으로 축성을 받고 그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하려면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고트어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27개의 알파벳을 고안해 냈다. 이 글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몇몇 독일어 룬 문자로 만든 것이다. 율힐라스 감독은 이렇게 성서 번역을 시작하기 전 쓰는 말의 글자를 고안해 낸 첫 성서번역자가 되었다.

그 뒤 40년 간 그는 칠십인역을 대본으로 삼아 고트어로 성서를 번역하였다. 신약은 비잔틴 본문을 따라 번역하였다. 그는 그리스어 구문을 따라 문자적으로 번역하였다. 그는 고트 사람들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인의 싸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번역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고트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웠고 5세기에 고트어 성서는 이들과 함께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퍼져 나갔다.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6세기의 아르겐투스 코덱스(Codex Argenteus)를 빼고 이 번역의 몇 단편만 남아 있다. 이 코덱스는 스웨덴 옘살라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3.3.2. 성 제롬

제롬의 온 이름은 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345?-420)로 오늘날 번역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 제롬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달마티아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로마로 가서 교육을 받았다. 거기서 그는 당시 최고의 문법학자였던 아엘리우스 도나투스의 제자가 되었다. 수사학을 공부하였고 특히 고전 저술가인 버질과 시세로와 호레이스를 공부하였다. 젊은 시절 그는 로마에서 출발하여 로마 제국을 두루 여행하였다.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어를 공부하였으나 거기서 무척 아팠다. 아픈 중에 자신이 심판 받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자 심판관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시세로를 따르는 자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 꿈 속에서 약속하기를 그 때부터 “하나님의 책”만을 읽겠노라고 했다는 것이다(Wegner 1999: 254). 안디옥에서 시리아의 칼키스 광야로 가서 2년 동안 수도자 생활을 하였다. 거기서 그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수도 생활에 깊이 빠졌다. 382년 로마로 돌아와 다마수스 교황의 비서로 임명받았다. 그 때 라틴어 성서를 개정하고 표준화하는 일을 하라는 명을 받은 것이다.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제롬은 옛 라틴어 번역들이 난잡한 것을 알고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시편과 신약을 그리스어 본문에서 옮기고자 했다. 하지만 곧 원문에서 번역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된다. 칠십인역 대신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384년 다마수스 감독이 죽자 제롬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구약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라틴어로 옮겼다. 405년에 그 일을 마쳤는데 이 책을 불가타라고 부른다. “대중적인”

또는 “평범한”이라는 뜻이다. 이는 당시의 대중적인 또는 평범한 라틴어로 된 책이었다. “옛 라틴어”의 옛스러움을 좋아하던 교인들은 금방 이 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그 장점이 알려지자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선포되기에 이른다. 불가타역은 어떤 역본의 수명보다 긴, 1000년 이상이나 교회의 성경으로 읽어왔다.

제롬은 원문을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옮기려고 하였으며, 신약의 비평본을 편집하려고도 하였다(Baker 1998: 497). 그의 번역 방식은, 395년 팜마키우스에게 그가 보낸 유명한 편지에 써어 있는 대로 “낱말과 낱말을 대응하여 옮기지 않고 뜻을 옮기는 일”이었다. 이 방식은 그가 공부한 시세로의 번역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또한 말의 순서에도 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였다.

### 3.3.3.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1761-1834)는 전형적인 “선교사이며 번역자이며 학자”(Smalley 1991:40)였다. 영국의 극빈 집안 출신인 캐리는 1793년에 인도로 건너가 그 당시 전설적인 선교사가 되었다. 교육을 받은 적이 별로 없고 혼자 공부한 캐리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그가 빌린 책과 문법서로 공부하였다. 그는 또한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와 이탈리아어를 읽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언어를 습득하고 그는 아내와 함께 인도로 간 것이다.

인도에 도착하자 그는 동인도회사에 취직한다. 선교사는 스스로 벌어 일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먼저 간 선교사들이 해놓은 번역을 참조하면서 뱅갈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번역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는 자신이 직접 번역을 시도한다. 캐리 뱅갈어 신약이 그가 인도에 도착한지 3년 뒤에 나왔다!

1799년 캐리는 두 동료와 힘을 합했다. 인쇄인 윌리엄 와드 그리고 그와 같이 학자이고 번역자인 여호수아 마쉬만이 그 두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은 덴마크의 식민도시인 세람포어에 인쇄소를 차렸다. 캐리는 그의 뱅갈어 신약을 수차례 고쳐 1801년에 신판을 펴냈다. 뱅갈어 오경도 번역하여 1802년에 펴냈다. 캐리는 산스크리트어가 매우 중요한 종교언어라는 것을 금방 알고 그 말을 배우기 시작하여 성경을 번역하였다. 또 마라티어를 배워 성경을 번역하였으며, 힌두어를 배워 그렇게 하였다. 힌두어를 빼고 그는 배운 모든 언어의 문법과 사전을 썼다. 동료 여호수아 마쉬만은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1822년 세람포어 인쇄소에서 첫 중국어 성경전서를 펴냈다.

그는 혼자 번역하기도 했지만 원주민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기도 하였

다. 원주민들이 번역하면 그가 원고를 고쳐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경을 40개 언어로 번역하여 1832년 세람포어 인쇄소에서 펴냈다. 수많은 문법과 사전과 다른 책들은 이 속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캐리의 번역에는 치명적인 흠이 있다. 아마도 말의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 못한 그의 언어습득 과정에 흠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그 자신이 말하는 모국어를 잘 모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부분적으로는 정규적인 언어교육과 성서학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정확성”을 기하려다 보니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원문의 말씨와 구조를 너무 좇아가는 경향이 있다. 세람포어에서 나온 번역은 아주 조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민 쎄니는 말하기를, 윌리엄 캐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번역한 언어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와 그의 동료가 언어, 문학, 농업, 식물 분야 연구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교육 기획을 실시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고 사회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쎄니는 이렇게 기록한다. 선교사로서 “캐리는 그리스도교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복음을 성실하게 선포하면 더 한층 그리스도교가 뿌리내리는 일에 힘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1989:101).

### 3.3.4. 사무엘 크로우더 주교

사무엘 아자이 크로우더(1810-1889)는 지금 제3세계에서 성경을 모국어로 옮기는 그리스도인 번역자들의 선구자이다. 크로우더는 요루바 사람으로 지금의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노예로 잡혀 아메리카 행 포르투갈 배에 실렸다. 이 배를 멈추어 세운 영국 군함은 화물이 되어 끌려가는 노예들을 풀어 주고는 씨에라리온의 프리타운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이 소년은 그리스도교를 만났다. 세례를 받고 포오라 베이 대학의 첫 학생이 되었다. 아프리카에 세운 첫 번째 중등학교였다. 그는 성공회의 교리문답 교사가 되었다. 1841년 교회 선교회를 대표하여 니제르 탐험에 참여하였다. 니제르 강을 따라 내륙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탐험이었다. 탐험에 실패하고 씨에라 리온으로 돌아온 뒤 영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한다. 영국 국교회의 첫 아프리카인 사제로 서품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주교가 된다.

크로우더 주교는 영국에서 씨에라 리온으로 돌아와 모국어로 풀려난 요루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845년에는 영국인 한 사람, 독일인 한 사람 그리고 요루바인이 자신이 선교팀을 이루어 그의 고향인 나이지리아의 아베오쿠타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세례예식 때 그는 세례식 예문을 요루바어로 번역하여 거행하였다. 곧 성서번역에 착수하여 로마서를 필두로 누가복음, 창세기, 출애굽기를 차례로 번역하였다. 번역 작업을 하면서 도와 줄 사람들을 모았다. 또한 그

뒤 요루바 사람들과 선교사들로 구성된 번역진을 이끌기도 하였다. 요루바어 신약은 1862년에 나왔으며 개정판이 1865년에 나왔다. 요루바어 성경전서는 1884년에 나왔으며 그 뒤에 여러 번 개정되어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

#### 4. 탈리타 쿨! - 말씀을 옮기기

성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옮기는 일이 쉽거나 단순하다는 말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무엇을 옮길 것이며 어떻게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울힐라는 번역의 정확도에 무척 신경을 썼는데, 이 경우 문제는 얼마만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Wegner 1999:256). 제롬은 좀 자유로운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의 입장 때문에 특별히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의견의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울힐라처럼 캐리도 정확도에 신경을 썼지만 울힐라와는 달리 번역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번역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크로우더의 번역 입장은 마르틴 루터와 비슷하였다. 또한 크로우더역도 요루바의 문학 전통에서 독일에서 루터역이 점하고 있는 위치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번역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아래는 그 가운데에서 몇 개만을 뽑아 본 것이다.

1.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하신 아람어 그리고 그 그리스어 번역 원칙과 번역 문제
2. 신명 번역
3. 주요 용어 해석과 번역
4. 원문의 형식을 옮기는 일은 번역문 어법에 적합한가

##### 4.1. 번역 문제

제롬이 말한 “뜻을 옮겨야” 한다는 원칙은 유진 나이다의 내용의 동등성 원칙보다 먼저 나온 것이다. 이 원칙이 강조하는 점은 원문의 말과 구조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제롬은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말을 그리스어로 옮긴 마가의 번역 기법을 편들었다(Nida 1964:13).

아람어 - Ταλιθα κουμ

그리스어 - Τὸ κοράσιον, σοὶ λέγω, ἔγειρε.

개정표준역(RSV) -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Little girl, I say

to you, arise.)

현대영어역(CEV) - “소녀야, 일어서라”(Little girl, get up!)

아람어 본문에는 두 낱말 뿐이다. 첫 말은 “소녀” 또는 “계집아이”라는 뜻의 여성 명사로 호격이다. 부름말이다. 예수는 소녀를 부르신다. 그리스어 명사는 애칭이다. 그래서 개정표준역과 현대영어역은 모두 “소녀”(little girl)로 옮겼다. 또한 몇 프랑스어역도 애칭인 “소녀”(fillette)로 옮겼다. 둘째 말은 명령을 나타내는 단수 2인칭 명령형 동사로 “일어나라” 또는 “일어서라”는 뜻이다. 제롬은 자유롭게 새긴 자신의 번역이 옳다고 말한다. 복음서 기자가 원문에는 없는 “내가 네게 말한다”를 집어넣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오늘날 번역학 용어로 말하자면 원문에 스며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 이는 마가이다. 개정표준역(RSV)은 아람어 원문을 옮긴 그리스어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한편 현대영어역(CEV)은 마가가 집어넣은 것은 빼고 대신 아람어를 옮겼다.<sup>10)</sup>

이 본문의 여러 사본에서 발견되는 본문 문제가 둘이 있다. 어떤 사본들은 “탈리타” 대신 “타비타”(다비다)로 되어 있다. 메츠거에 따르면(Metzger 1975:87), 서기관이 행 9:40에 나오는 고유명사와 혼동하여 생긴 문제라고 한다. 곧 베드로가 이 이름을 지닌 어떤 여인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한 말과 혼동한 듯하다는 것이다. 둘째 본문 문제는 동사의 끝에 관련된 문제이다. “탈리타”라는 아람어 명사의 성은 여성이다. 그런데 “쿰”이라는 동사의 성은 여성이다. 정확하게 표기하려면 “쿠미”라고 해야 옳다. 몇 사본과 몇 번역도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쿰”은 때로 여성 명사나 중성 명사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가장 좋은 양질의 사본에 근거하여 옮긴 역본들에서 이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번역자는 모호한 면에 맞닥뜨린다. 그 동사는 누워 있는 자세에서 일어나 앉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말인가?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동사가 보통 부활을 말할 때 흔히 쓰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소녀가 자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낱말을 이해한다. 개정표준역(RSV)은 그리스어 본문의 모호한 점을 그대로 견지한다. 반면 현대영어역(CEV)은 잠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어 나오는 구절을 보면 그 소녀는 일어나 주위를 걷기 시작했다고 한다. 침상에서 잠자다가 깨어나는 일상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0) 평행구절인 눅 8:54와 비교해 보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가 하신 말씀에 “내가 네게 말한다”는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눅 7:14과도 비교해 보라.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젊은이에게 일어나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네게 말한다”는 표현이 덧붙여 있다.

## 4.2. 주요 용어 옮기기

주요 용어 또는 주요 낱말은 성경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요 낱말은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나타내는 기본 낱말이다. 번역자가 이 낱말을 바르게 옮기는 일이, 적어도 잘 옮기는 일이 본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도 물론 주요 용어이다. 주요 용어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전문 용어 또는 구체적인 말과 철학 용어 곧 추상적인 말이다. 전문용어는 성서 속의 생활 및 문화와 관련된 말로 장막, 성전, 회당, 포도나무, 백향목, 눈, 겨울, 총독, 지배자, 달란트, 왕관 등과 같은 말이다. 추상적인 말은 성서의 사상 및 신학과 관련된 말이다. 거룩, 법, 제사, 계약, 지혜, 은총, 믿음, 의, 진리, 은총, 영광, 육, 영, 생명 등과 같이 수 없이 많다. 아이로의 딸 이야기에서 “일어나라”는 동사 역시 주요 낱말로 부활 개념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성서의 신학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타내는 주요 용어는 번역자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원문의 용어 뿐만 아니라 번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영진 박사는 전 1:7의 뜻을 논하면서 이 점을 잘 밝힌다. 한글 역본에서 이 구절을 옮길 때 생기는 문제를 다룬 글이다(Young-Jin Min 1991:226-231). 유진 나이다 또한 최근의 책 *Contexts in Translating*(2001)에서 번역자에게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용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구약의 헤세드와 신약의 카리스이다. 헤세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관계에 오래도록 헌신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임스왕 역은 이 말을 “인자”(lovingkindness)라고 옮겼는데 영어에서는 지금 이 말이 고어가 되어버렸다. 개정표준역(RSV)은 “끊임없는 사랑”(steadfast love)으로 옮겼고, 현대영어역(CEV)은 “성실한 사랑”(faithful love)으로 옮겼다. 몇 현대 역본은 그냥 하나님의 “자비”(mercy), “친절”(kindness) 또는 “호의”(favor)로 옮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번역어가 헤세드의 뜻을 다 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신약의 편지를 쓴 이들은 하나님의 카리스란 하나님이 한없이 좋으심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곧 사람들에게 한없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일을 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없이 좋게 대하신다는 것이다. 영어와 프랑스어에서는 불가타역의 라틴어에서 말을 빌려와 “은총”(grace)이라고 쓴다. 현대영어역(CEV)은 이렇게 빌려온 말을 피하고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해주신다”(treats us much better than we

deserve)고 옮긴다(롬 3.24). 베드로전서 1:2의 축복문에서 현대영어역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친절하시기를 기도합니다”(I pray that God will be kind to you)라고 옮긴다. 하지만 번역자는 이 용어를 번역할 때 문맥이 다양한 곳에 나오더라도 각 본문에서 일정하게 그 뜻이 반영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또 생각해야 할 점은, 많은 역본이 영어역이나 프랑어역에서 옮긴 때문에 “은총”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 문화에서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제사라는 말은 여러 문화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자신의 종교 전통과 성서의 제사 전통이 이 점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때로 문제가 되는 점은 토착종교 전통에서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 말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어떤 때 번역자들은 자신의 종교 전통에서 말을 가져다 쓰지 않고 이슬람 전통에서 빌어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다카(sadaka)라는 아랍어는 이웃 인접어를 통하여 들여온 말로 조상들이 드리던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는 세례 예식의 경우, 번역자는 자신들의 전통에 정결 예식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도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영어나 프랑스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 4.3. 신명 번역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목시룩까지 성경 전체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은 중요한 용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번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번역자는 우선 원문을 읽어야 한다. 물론 창세기 첫 구절에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한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한다. 남성 복수로 되어 있는 말이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이다. 단수인 ‘엘’이나 ‘엘로아’가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다. 타지 않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해주신 적도 있다(출 3:14). 하나님 이름 네 글자 또는 신명 사문자(tetragrammaton, tetragram)라고 부른다. 히브리어 네 자음(YHWH)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칠십인역에서는 ‘신’을 가리키는 그리스어로 ‘엘로힘’을 옮겼다. ‘테오스’라는 말로 남성 명사이다. 신약에서 ‘신’을 가리키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복수형으로 쓸 때에는 ‘신들’이란 뜻을 지닌다. 그리스도교회는 이를 따라 번역할 때 각 언어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을 채용하여 사용한다. 카메룬과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의 말인 그바야(Gbaya)로는 하나님을 ‘쏘’(Sö)라고 하는데, “영”이라는 뜻이다. 곧 “인간을 두신 영”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국경에 있는 알란티카 산맥에 사는 삼바(Samba)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의 이름이 들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바네브(Vanèb)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야마(Yaama)라고 부른다. 바네브는 창조주이고 야마는 바네브가 지어낸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인 야마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번역 초기에 삼바 사람들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삼을까 갈렸다. 바네브로 결정하였으나 아직도 야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드의 지메(Zimé) 사람들은 ‘비’[雨]라는 뜻을 지닌 전통적인 신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다. 차드의 페베(Pévé) 사람들은 ‘이프라이’(Ifray)라고 부른다. 이 말은 여성명사로 두 낱말을 합쳐 놓은 것으로 “어머니 하늘”이라는 뜻이다(Venberg 1971:68). 이와 비슷하게 탄자니아의 이라쿠(Iraqw)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루아’(Looa)라고 부르는데 역시 여성 신이다. 알루 모졸라에 따르면 “루아는 만물의 어머니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다(Aloo Mojola 1994:87). 페베인 번역자들은 이 페베말을 받아들여 이프라이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 생기는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다. 하지만 모졸라가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라쿠인 번역자들은 대안이 없었다.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는 스와힐리 말 뭉구(Mungu)를 빌어쓰기도 했으나 이라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 이름을 옮기는 일은 보통명사를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고유명사는 때로 음역하여 번역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는 발음할 수 없는 신성한 이름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음역하기가 힘들다. “주님”이라는 뜻을 지닌 ‘아도나이’로 읽기 때문이다. 칠십인역은 “주님”이라는 뜻의 ‘퀴리오스’로 하나님 이름 네 글자를 대치하였다.

현대번역본 대부분은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이 한 대로 따라 한다. 원문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네 글자는 아도나이로 읽고 “주님”(Lord)으로 옮긴다. 개정표준역(RSV)과 현대영어역(CEV)은 대문자나 크기를 약간 줄인 대문자로 이 이름을 표기한다. 주인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한다. 어떤 번역은 하느님의 이름을 존재 개념으로 이해하여 옮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프랑스어역은 “영원한 분”(l’Eternel)이라는 뜻으로 옮겼다. 어떤 역본은 그냥 음역하기도 한다. 제임스왕 역은 “여호와”(Jehovah)로 표기하였으며, 다른 현대역본들은 “야훼”(Yahweh)로 표기하기도 한다. 어떤 언어에서는, 특별히 초기 선교사시대 번역본에서는 “여호와”(Yehova)로 음역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이는 그냥 음역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칠십인역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는 번역어의 고유 표현으로 옮겨야 한다고도 말한다. 예를 들어 치체와(Chichewa) 성서번역 팀은 “위대한

활”이라는 뜻의 차우타(Chauta)라는 전통적인 이름을 채택하기도 했다. 체와(Chewa)를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부양하시는 위대한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Wendland 1992:436).

#### 4.4.번역과 문학 형식

그바야(Gbaya) 이야기 시간은 다음과 같은 교송 합창으로 시작한다.

느가이 노오, 지이 토오  
토오 제케데 제케데, 지이 토오  
토오 제케데  
종가 노오, 지이 토오  
토오 제케데 제케데, 지이 토오  
토오 제케데  
히르르 크핑김 토오

이야기꾼이 청중들을 부르는 말로 첫 행을 이렇게 각각 부른다. “청년들이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가씨들이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머니들이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이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청중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부른다. 청중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가 재미있다, 재미있다,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응답한다.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꾼은 “히르르 크핑김 토오!”라고 소리친다. 이 말은 아주 무거운 짐을 끌거나 밭 때 지르는 소리로, 곧이어 깨지는 소리를 낸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청중들은 이야기가 폭소를 자아내지만 또한 무거운 내용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놀이이지만 동시에 교훈이 들어 있다. 짧게 말하자면 이야기는 놀이이지만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술가는 이렇게 공연을 잘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곧 예술가는 온갖 화려한 말과 함께 미학적인 고안물을 다 동원한다. 이 점은 문학이라면 씌어진 형태이든 구전 형태이든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서는 기록된 것이지만, 형성 초기에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성서의 저자들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려고 여러 기법을 간직하기도 하고 또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대부분 시문인 구약의 예언서가 특히 그렇다. 그바야 이야기꾼처럼 성서의 시인들은 소리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한다. 운, 리듬, 강조, 소리놀이, 말놀이 등을 동원한다.<sup>11)</sup>

---

11) 히브리 시형론에 대한 개론으로 Zogbo와 Wendland가 쓴 *Hebrew Poetry in the Bible: A Guide for Understanding and for Translating*(2000)을 보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는 땅의 원초적 상태를 ‘토후 바 보후’라는 히브리어 말로 표현한다(창 1:2). 칠십인역은 이 표현을 “보이지 않고 다듬지 않은”으로 옮겼으며, 불가타역은 “텅 비어 있는”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표현은 소리를 반복하여 말놀이를 한다. 소리가 형체 없음과 비어 있음을 드러낸다. 아프리카의 많은 언어는 소리로 뜻을 나타낸다. 크로더 주교의 요루바어 번역은 “(땅은) 주쥬(jūjū)하고, 소호(ṣofo)했다”고 읽는다. 첫 말의 뜻은 무질서한 상태, 곧 뒤죽박죽 상태를 가리킨다. 둘째 말은 동사로 “비어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구약 예언서처럼 이사야서는 시이다. 시의 특징이 많이 들어 있다. 이사야 10:14에서 예언자는 거만한 아시리아 왕의 말을 인용한다. 온 세상을 “아무도 입을 열거나 주절거리지”(우포체 폐 우메찰췌) 못하게 정복하겠다고 거들거리는 내용이다. “프”와 “츠” 소리를 반복하는데, 특별히 ‘찰췌’이라는 말은 작은 새들이 조잘대는 소리를 가리킨다. 개정영어성경(REB)은 “어떤 부리도 벌리지 못하고 꺾소리도 하나 들리지 않게”(not a beak gaped, no cheep was heard)로, 현대영어역(CEV)은 “아무도 심지어... 눈감짝 못하게”(no one even ... made a peep)로 읽었다. 의성어라고 부르는 문학 기법이다.

의성어(onomatopoeia)는 소리로 뜻을 나타내는 말을 가리키는 용어로, 요즘 소리말(ideophones)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표현하는 낱말로, 전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범주이다. 의성어는 특히 귀에 들리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로,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개가 짖는 소리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 하지만 소리말(ideophones)은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요루바어 성경은 무질서한 땅은 주쥬(jūjū)라고 표현한 것이다.

소리말(ideophones)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화가 있다. 특별히 전래 동화나 이야기, 격언, 수수께끼, 시, 노래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이런 문화권에서 성서를 번역할 때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성서 곳곳에서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낸다. 한국인 작가 이용신은 성서 만화를 그리면서 소리 말을 많이 사용한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Lee Young Shin 1999:64)에서 그는 다윗이 물매를 돌리는 모습을 “봉 봉 봉”이라고 표현하고, 물매 돌이 날아가는 소리는 “훅!” 또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맞는 소리는 “퍽!” 또 그가 쓰러지는 소리는 “쿵!”이라고 표현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윗이 물매 돌리는 소리를 “시이-잉”이라고 하며, 돌이 날아가는 소리는 “시우우우트...” 또 골리앗의 이마에 맞는 소리는 “벽!”이라고 표현한다. 번역자들은 만화판 성서보다는 성서 본문 자체에 더 얽매이는 경향이 있다. 그바야(Gbaya)어 성경에는 소리말(ideophone)이 이야기 속에 딱 한번 나온다. 골리앗이 땅으로 쓰러지는 소리를 “렘”으로 표기한 것이 그 예이다. 소리말이 많이 등장할 때 극적인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데 성

서본문 번역보다는 만화성경에서 더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성서 속의 이야기를 묘사할 때, 소리말이 원문에 없는 경우에도 소리말로 원문의 뜻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유대인들이 마구 뒤섞여 결혼 생활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에스라가 충격을 받고 낙담하는 장면(라 9:3)을 옮기면서 그 바야(Gbaya)어 성서는 그가 “토코로”(tokoro)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고 표현한다. 자포자기한 모습을 그린 말이다. 그바야어 성서의 계 1:14에는 인자의 머리칼 색깔을 “크푹 크푹”(kpung kpung)이라고 표현한다. 매우 하얀 색깔을 나타내는 소리말이다. 계 1:16에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페덴-페덴”(peDeng-peDeng)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묘사한 소리말이다.

시는 성서의 한 장르로, 소리말이 무척 많이 등장한다. 시 19:8에서 주님의 명령은 느겔레라고 하였고, 시 23편에서 시인은 잔이 제레레 흘러넘친다고 했다. 대구법은 히브리 시 뿐만 아니라 그바야 구전문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시편 20:8에서 번역자들은 소리말을 사용하여 원문에 들어 있는 대구법을 잘 표현한다.

#### 개정표준역(RSV)

그들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They will collapse and fall;).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곧추 설 것이다(but we shall rise and stand upright.).

#### 그바야(Gbaya)역

그들은 바닥으로 삼그방 쓰러질 것이다(For them it's falling to the ground *samgbang*).

그러나 우리는 켩 똑바로 설 것이다(but for us it's standing upright *keng*.).

물론 소리말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주의를 끄는 극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 “지나친 번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역본은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땅의 상태를 말할 때 소리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땅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고 저자가 마치 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탈리타 쿨! - 메시지를 읽기

성서를 읽고 사용하는 일은 과거에는 간과하였던 문제이다. 하지만 요즘은

성서 번역자나 성서학자들이 점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문제이다. 아래에서 번역자의 성서 읽기를 먼저 생각하려고 한다. 그런 다음 독자들의 성서 읽기와 사용을 생각하고자 한다.

### 5.1. 성서 번역자와 성서 읽기

주요 번역원칙 가운데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성서번역자는 우선적으로 교육 받는다. 다른 두 원칙은 번역이 분명해야 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주석에 마음을 쏟는다. 번역자는 또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성서공회의 규정에 번역은 “교리적 주나 설명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 벗어나지 않고 본문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우리 번역자들은 본문을 주석하고, 나름의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신학과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메시지를 옮기고자 할 때 이러한 여러 요인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Wilt 2002).

예를 들어보자. 마가는 아이로의 딸에게 명하신 예수의 말씀을 옮길 때 “내가 네게 말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 그 표현이 예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마가가 그렇게 옮긴 이 표현 속에 스며 있다는 점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이 표현 속에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마가는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이 표현은 마가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이어져 나오는 말을 유심히 들어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얘기하려는 고안물은 혹시 아닌가? 이 표현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가? 말하는 이인 예수에게 마가가 관심을 기울여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 마가가 이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옮기느냐하는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현대영어역(CEV)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동시에 이 마가의 예는 직역이라고 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이다. 예수는 물론 잠잔다는 말로 이 점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은 소녀가 죽었다는 심부름꾼의 말을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라!”는 명령에는 두 뜻이 들어 있다. 일어서라는 뜻과 다시 살아나라는 뜻이다. 어떤 언어로는 아람어와 그리스어의 모호한 점을 표현해 내지 못한다. 따라서 번역자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어 번역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관점을 가지고 풀어야 내야만 하는 모호한 본문이 많으며, 번역자의 이데올로기가 성서 전체 번역에 스며드는 경우도 있다. 최근 유럽어와 북 아메리카에서 신약 번역은 “호이 유다이오이”라는 표현의 번역 문제로 시끄럽다. “호이 유

다이오이”는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문자적으로 “그 유대인들”이라고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초기 역본들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어왔다.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지 않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읽으면 안될까? 물론 이 논의는 전후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현대영어역(CEV)과 다른 역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읽는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일하는 학자 중에 고스넬 율키(Gosnell Yorke 2000:114-123)같은 분은 아프리카인의 시각으로 성서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인 중심의 시각에서 번역한 성서가 간과하고 뒤틀리게 한 점을 번역 자체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곧 성경 각 책의 서론에서 또 주나 용어록이나 지도 등 보조 자료를 이용하여 원문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아프리카 중심주의라는 지역적인 함의가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문제도 얽혀 있다. 이 문제를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아 1:5이다. 개정표준역(RSV)은 “나는 아주 검다. 하지만 잘 생겼다”(I am very dark, but comely)라고 읽었다. 현대영어역(CEV)은 “내 피부는 검고 아름답다”(My skin is dark and beautiful)고 읽는다. 그 속뜻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표현 속에 피부색깔에 대한 편견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예도 있다. 곧 번역 성경에서 “알라”라는 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친구와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몇 개의 이른 역본에서는 선교사들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아랍어와 밀말이 같은 이름이나 낱말을 쓰지 않기도 했다. 오늘날 이데올로기 문제는 신학보다는 국제정치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기도 한다.

## 5.2. 성서 읽기와 성서의 사용

성서번역은 원고가 인쇄에 들어가면 끝나는 과정이다. 하지만 성서의 중요성은 번역에 있지 않고 사용에 있다.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만큼, 읽는 이의 삶에 영향을 준다. 곧 성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들의 신학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sup>12)</sup> 이 말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영어권과 독일어권에서 제임스왕역과 루터역이 각각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프리카 신학자 존 음비티는 주장하기를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각 언어로 번역된 성서는 아프리카 교회를 형성해 온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 첫째이

12) 이 문제에 관한 중요한 논문 모음집으로 Philip C. Stine이 편집한 *Bible Translation and the Spread of the Church: The last two hundred years*(1990)를 보라.

다”라고 말한다(Mbiti 1986:28).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윌리엄 미첼은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다. 남 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 사는 케추아 사람들과 아이마라 사람들의 언어로 구약이 나왔을 때, “안데스 사람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구약을 읽을 것이다”(1987:129)라고 말한 적이 있다.

수기르타라야(R. S. Sugirtharajah)는 그의 책 *The Bible and the Third World*(2001)에서, 식민주의 관점에서 성서를 바라 보았다. 그는 성서번역의 역사를 식민주의 이전시대, 식민주의 시대, 식민주의 이후 시대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나이다가 성서번역사를 교회 및 선교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수기르타라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 관점으로 세계와 그 역사를 19-20세기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연결시켜 해석한 것이다. 그는 식민주의를 배경으로 삼아 성서번역과 번역성서 읽기를 해석한다.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이전 시대에 성서는 “소수가 읽는 변두리 본문”(2001: 3)이었다고 말한다. 식민통치 시대에 성서번역은 식민 정치 및 경제 제국과 함께 나란히 손을 잡고 갔다고 한다. 그는 성서적 제국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성서공회가 성공적으로 성서를 번역하고 또 뿌렸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식민통치 이후 시대 성서의 재생”(2001: 173)을 말하면서 해방신학을 포함한 식민통치 이후시대의 여러 성서 비평학과 성서 읽기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성차별 언어를 쓰지 않고 포괄언어를 사용하는 문제는 엄청난 논쟁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특별히 유럽언어 역본에서 더욱 그러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번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아프리카 여성신학자인 니암부라 은조로게(Nyambura Njoroge)와 무사 두베(Musa Dube)는 각각 케냐와 보츠와니아 출신으로 *Talitha Cum! Theologies of African Women*(2001)이란 책을 편집하였다. 이 책에서 이들 학자는, 아이로의 딸에게 하신 예수의 명령은 아프리카 여성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말한다. “일어나라, 일어서라.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제외되고 소외되고, 폭력을 당하고 기댈 데 없는 상황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라”(viii 쪽)는 부르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성서번역을 예수의 나토심에 빚댄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각 문화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유의 토박이말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무사 두베는 “여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아프리카 성서는 아프리카 여성들을 변두리로 몰아내고 사회에서 또 영성의 터에서 여성들을 소외시켰다”(2001: 22)고 주장한다. 가나의 장로교회 목사인 로즈 테테키 아베이는 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아”(Gā)로 표기하여 가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만, 실은 교회가 하나님을 지독하게 남성 중심으로 또 가부장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2001:140 이하). 아타아 나아 니온모(Ataa Naa Nyonmo)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가아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옮길 때 이는 성서의 하나님과는 무관한 표현이다.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곳이 구약에는 많기 때문이다. 로즈 아베이는 호세아 2:21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정을 인용한다. 또 이사야 42:14에서 여성처럼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46:3-4와 66:13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는 것을 주목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말하는 신학”(154쪽)에서 아타아 나아 니온모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6. 맺는 말

성서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하는 데 중요하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속도로 이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94%가 모국어로 성서를 접해 보았지만, 아직도 3,0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서를 접해본 적이 없다. 나토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면 또 하나님이 번역된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면 인류는 모두 모국어로 이 말씀을 읽을 권리가 있다. 더구나 오늘날 다른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언어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이 사라지기 전에 그 말로 성서를 옮길 의무가 있다. 흔히 피진(pidgin)어와 크레올(creoles)어라는 새로운 언어가 있는데 신약과 성경전서를 이들 언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번역이 나오는가 하면, 옛 번역은 고친다. 영어역본을 예를 들더라도 새 제임스왕역(NKJV), 새개정표준역(NRSV), 개정영어성경(REB), 새생활성경(NLB)이 그런 예이다. 다른 언어권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옛 번역을 좋아하더라도 새로운 세대가 읽을 새번역을 내놓는 것이다.

번역이 글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새로운 번역이나 기존번역을 담기 위해서 점점 새로운 미디어가 동원되는 추세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비디오, 씨디롬도 읽을 시간이 없거나 읽을 수 없는 이들이 성서를 읽도록 하는 좋은 매체이다.

요약하자면 성서를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전달할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성서 번역자인 우리가 함께 나눌 꿈은 요한이 계 7:9-10에 기록한 바로 그 꿈이다(표준새번역 개정판).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

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번역: 이환진)